

12월 넷째주 주일 낮예배 대표 기도문

12월 넷째주 주일 낮예배 대표 기도문

12월 넷째주 주일 낮예배 대표 기도문으로 성탄절을 앞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소중한 시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감사와 회개, 그리고 새로운 다짐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12월 넷째주 주일 낮예배 대표 기도문 1 - 성탄절 준비

“그 아기는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여 있을 것이라” (누가복음 2:12)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2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2000여 년 전 베들레헴의 작은 마굿간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부족했던 모습들을 회개하며,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어려운 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 넷째주 주일 낮예배 대표 기도문 2 - 감사와 회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복음 15:16)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2월의 끝자락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크고 작은 은혜들을 하나하나 기억합니다. 주님, 올 한 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을 보호해 주셨으며, 일터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셨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도 고백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욕심을 앞세웠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자신만을 생각했던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선한 행실들을 소홀히 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특히 소외된 이웃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월 넷째주 주일 낮예배 대표 기도문 3 - 새해 다짐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민수기 6:24)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 시점에서 주님께 나아가 기도드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보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날들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올해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심을 믿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화합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예배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섬겨온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더욱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에는 더욱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며, 기도생활에 힘쓰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기를 다짐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목표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성탄절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 마음에 넘쳐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진정한 사랑과 평화를 나누는 계절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월 넷째주 주일 낮예배 대표 기도문 4 - 교회와 공동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20)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모두를 하나로 모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각기 다른 삶의 자리에서 나온 우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돌아봅니다. 목회자님들과 모든 교역자분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섬기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과 청소년들, 청년들을 위해서도 간구합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입시와 취업, 결혼 등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르신들과 중장년 성도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연말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소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직장과 학교, 지역사회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우리 교회가 더욱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 세상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 넷째주 주일 낮예배 대표 기도문 5 - 선교와 전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마태복음 28:19)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명령하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얼마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먼저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선교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 친구, 동료들 중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알면서도 때로는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내년에는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맞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이 기쁜 소식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어,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동포들과 전 세계의 모든 민족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상으로 12월 넷째주 주일 낮예배를 위한 대표 기도문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각각의 기도문은 성탄절을 앞둔 시기에 맞는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와 회개, 다짐과 소망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더 자세한 기도문과 예배 자료는 [금란교회 홈페이지] (https://www.kumnan.org/board_mPeU8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도문 보러가기:

[대표 기도문 나눔터] <https://prayer-church.co.kr/>